

중국, Bisphenol-A 반덤핑 조사

타이완 · 일본 · 러시아 · 싱가포르 · 한국산 대상 ... 2005년 5월 결론

중국 상무부는 2004년 5월12일 타이완,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산 Bisphenol-A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기업을 대표해 Blue Star New Chemical Material이 2004년 3월12일 제기한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관련자료 및 증거 검토를 마친 2004년 5월12일 덤핑조사 개시를 전격 발표했다.

덤핑 여부는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의 수입을 대상으로, 산업피해는 2000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대상 품목은 중국 관세행정 수출입 관세표상 Code 29072300으로 분류돼 있고, 덤핑 조사는 2004년 5월 12일부터 1년간 계속되며 예외적으로 2005년 11월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Blue Star는 타이완,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들어오는 대량 수입으로 인해 중국의 Bisphenol-A 생산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덤핑조사에 따라 중국의 Bisphenol-A 생산 및 마케팅 관련기업들이 호기를 맞게 됐는데, 4월에는 BPA 가격이 9000元에서 1만1000元으로 상승했다. 2003년 중국의 Bisphenol-A 수입량은 17만6000톤이며 평균 수입가격은 CIF 톤당 942달러를 나타냈다.

2003년 Bisphenol-A의 중국 내수가격은 1월 톤당 6028元으로 하락한 후 5월에는 사상 최고가격인 1만1700元으로 상승했다.

Blue Star New Chemical Material은 Bisphenol-A가 주요 생산제품으로 2004년 5월9일 China Chemical Corporation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Blue Star는 2000년 Bisphenol-A 2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한 후 현재는 4만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중국 최대 생산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29>